

# 글로벌 경제뉴스+

2012. 2. 3 (금)

## 외신이 본 한국경제

- SK텔레콤 4분기 순이익 61% 감소 ... 하이닉스는 순손실 기록 (WSJ)
  - SK텔레콤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비 61% 감소한 1,960억원을 기록
  - 한편 하이닉스는 PC 수요 둔화에 따른 메모리칩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4분기에 2,39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올 2분기부터는 D램 가격이 회복되고 하반기로 다가서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뉴스

- 페이스북이 직면한 문제들 (Economist)
  - 방대한 사용자 정보와 강력한 소셜마케팅 플랫폼을 보유한 페이스북은 현존 최대 소셜네트워크 업체로 점차 입지를 넓히고 있어. 그러나 VIP 직원들에게 동인을 제공해야 하는 경영상의 문제와 온라인 검색기능 추가로 불거질 구글과의 갈등, 사생활 침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
- 교육이 자본주의 위기 해결의 출발점 (FT, Kenneth Rogoff 기고)
  - 오늘날 자본주의가 제기하는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교육으로, 학교교육 개선뿐 아니라 경제·금융 이해능력 제고 등을 위한 성인교육 시스템의 유효성과 강제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 교육은 자본주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



## SK텔레콤 4분기 순이익 61% 감소 ... 하이닉스는 순손실 기록

Wall Street Journal | 2012.02.03 | SK Telecom profit falls 61% | Jung-Ah Lee

- SK텔레콤은 2일,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지출 증가 및 요금 인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비 61% 감소했다고 밝혀
  -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의 5,025억원에서 1,960억원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122억원에서 3,294억원으로 35.7% 감소해. 매출은 4조230억원에서 3조9,300억원으로 2.3% 감소해
- SK텔레콤은 초고속 네트워크 부문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자본지출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2조3천억원으로 설정해
  - 한국 3대 이동통신업체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LTE 부문의 경쟁이 고조돼. 스마트폰·태블릿PC에서 보다 용량이 큰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면서 이 부문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 한편 SK텔레콤은 한국 정부의 요구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말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해

Wall Street Journal | 2012.02.03 | Hynix swings to net loss | Jung-Ah Lee

- 2일 하이닉스반도체는, PC 수요 둔화에 따른 메모리칩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2,39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향후 반도체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며 올 2분기부터는 D램 가격도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해
  - 하이닉스 CFO 김민철, “1분기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공급 제약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저조하겠지만, 소규모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생산 감축으로 공급측면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다 PC 수요 개선 조짐도 보이고 있어 앞으로 D램 시장이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돼”
-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D램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해
  - 시장조사기관 IHS아이서플라이, “글로벌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반도체 재고가 신규 생산을 촉진할 만큼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올 한 해 둔화될 것”
- 한편 하이닉스는 올해 자본투자 규모를 지난해의 3조4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확대해 플래시메모리 부문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 소셜네트워크 업체 페이스북은 1일 기업공개(IPO)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사의 기업가치를 750억~1천억달러로 평가해
  - 지난해 페이스북은 37억달러의 매출과 10억달러를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의 실적으로는 자사가 원하는 수준의 기업가치로 평가받기에 턱없이 부족해. 그러나 페이스북이 인간의 태고적 ‘사회화’ 본능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을 보면, 페이스북이 그만큼 가치를 정당화할 것으로 믿어도 될 것
  - 페이스북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브라질·인도를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에서는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 1천억달러의 시가총액도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다른 IT 대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그보다 더 높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의 시가총액은 각각 1,900억달러·2,500억달러·4,250억달러에 달해
  
- 또한 페이스북의 상업적 잠재력은 세 가지 이유에서 매우 높아
  - 첫째, 방대한 사용자 정보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은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프로필 페이지인 ‘타임라인’을 만드는 등 더 많은 사용자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있어. 이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 둘째, 페이스북은 가장 강력한 소셜마케팅 플랫폼임. 수십억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음반 구매에서 선거에 이르는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쳐
  - 셋째, 페이스북은 사실상 세계의 온라인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실명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른 기업들은 온라인 실명 확인 수단으로 페이스북 로그인 기록을 활용하기 시작해
  
-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어
  - 우선 페이스북은 신생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것과 관련해 경영상의 난제가 있어. 페이스북 직원은 3,200명에 불과하며, 그들 중 다수는 백만장자가 돼.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기업 상장을 오랫동안 미뤘던 것도 VIP 직원들에게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 때문
  - 페이스북은 IPO를 통해 수십억달러를 조달하게 되면서 직원 수를 늘리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그 중 온라인 검색 기능은 구글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 구글은 검색 결과에 자사 소셜네트워크인 구글플러스에 있는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어
  - 구글은 대중의 인기를 얻는 기업에서 수익성이 있는 기업으로 도약했지만 페이스북의 수익구조는 여전히 지나치게 디스플레이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 또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끈다고 해도 그들이 돈을 쓰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 페이스북의 최대 자산은 사용자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를 상용화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될 것.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자신의 정보를 남용해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페이스북을 떠날 것

- 이외에 우려되는 점들이 또 있어
  -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이미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정책 관련 외부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페이스북·구글 등 IT 대기업들은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기 전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디폴트 설정을 ‘옵트아웃(opt-out)’에서 ‘옵트인(opt-in)’으로 전환해야
  - 더 심층적인 차원의 문제는 ‘반독점’의 문제. 기술 업체들 간의 극도로 치열한 경쟁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경쟁자들을 빠르게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독점 구조 형성을 촉진하기도 해. 페이스북은 규모가 가장 큰 소셜네트워크 업체로, 곧 잠재적 경쟁업체들을 모두 인수할 만큼의 자금을 확보할 것
- 현재로서는 페이스북을 내버려두는 것이 합리적.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더 좋은 소셜네트워크가 나타나면 이동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과 구글의 갈등은 시작에 불과해
  -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반독점법 위반으로 곤란을 겪었듯이 새로운 IT 대기업들도 그러한 수순을 밟을 것. 구글은 곧 유럽 당국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페이스북도 언젠가 그러한 절차를 따르게 될 것. 페이스북을 소재로 한 영화는 이미 만들어졌지만, 페이스북을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워질 것

## 교육이 자본주의 위기 해결의 출발점 기고

**Financial Times** | 2012.02.03 | Our ignorance will yield more crises in capitalism | *Kenneth Rogoff*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 지난 3주 동안 本紙의 ‘자본주의 위기’ 기고란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가치에 대한 논쟁을 활발하게 벌였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시장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 이 기고란에서 금융규제 실패, 환경 및 소비자 보호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분배 실패의 문제가 모두 부각돼
  - 시장 시스템이 생산뿐 아니라 자선사업을 위해서도 더 잘 작동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는 빌 클린턴 미국 前 대통령의 주장은 옳아
  - Jeffrey Sachs 컬럼비아대 교수는 오늘날 성장 동력의 핵심적인 결점은 소비자들의 중독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크게 공감 가는 부분임.
  - ‘런던 점령(Occupy London)’ 시위대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과는 관계없이 소득격차 확대가 사회악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일리가 있어 보여
- 그러나 진지하게 시장에 대한 반대론을 펼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시장 규제 of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일 정도에 대한 논의만 이뤄져
  - 일반적으로 경제적 의미의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의미의 시장으로까지 확장되

지 않아

- 이런 점에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과 에드 밀리밴드 영국 노동당 당수가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정책을 결정적인 결점으로 지목한 것은 핵심을 찌르는 주장. 이들 모두 금융정책의 문제에 주목했지만, 같은 논리가 세계 온난화에서부터 세계 식량 생산에 이르는 다른 많은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어. 영향력 확대(purchase of influence) 문제는 금융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님.
- 마찬가지로 기업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의 문제도 선진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 향후 수십년 동안 중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생산업체들 사이의 경쟁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세계로 이전해가는 것일 것
- 중국은 앞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 모델로 전환해가야만 하는데, 이 성장 모델에서는 경쟁을 약화시키려는 국내의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기가 훨씬 어려워져
-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다른 국가들에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된 생각임. 일본과 구소련의 역사에서 입증된 것처럼,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의 경제발전 효과는 점점 줄어들게 마련임.
- 本紙 칼럼니스트 Martin Wolf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다양하고 풍부한 민간재를 생산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교육·인프라·환경·금융안정 등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해
- 정치적 의미의 시장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규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서구 국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난제임.
- 캐나다 등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공공재와 민간재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잘 수행해 왔음.
- 최소한 이들 국가의 정부는 오염에 관심을 기울여. 현재 유럽은 상당히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어. 또한 파업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시스템은 잘 작동돼
-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북유럽 모델에 주목하고 있는데, 각종 조사들에 따르면 이 경제모델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 물론 유럽의 당면 과제는 세계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맞춰 지나치게 관대한 연금 시스템 문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 그렇다면 공공재와 민간재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전제조건이 아담 스미스가 本紙에 보낸 편지(David Rubenstein 칼라일 그룹 회장의 상상에 기반한 내용)에 강조돼 있는데, 그것은 교육임.
- 자본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 Rubenstein 칼라일 그룹 회장은 부실한 초중고 교육 시스템과 성인 재교육의 필요성에

## 주목해

-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는 경제 및 금융 이해능력(literacy)을 포함한 성인교육 시스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유효하고 강력한 제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 유권자들이 지식이 없어 단기적이고 무분별한 정책을 내세우는 선동 정치가들에 쉽게 동요된다면, 자본주의 경제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
- 대중들이 교육에 무관심하며, 대중들의 이해능력(literacy)을 읽고 쓰고 셈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가망 없는 주장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해본 사람으로서, 본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구미에 맞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 그 정보를 열심히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임.  
· 웹 교육 플랫폼, 공공 라디오 및 TV 확대, 어린이 교육 다양화 등의 중요한 변화 없이, 현재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많은 정치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  
· 교육 개선만으로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교육은 해결책으로 가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될 것

### 날짜

### 글로벌 경제뉴스+

1.30 (월)	한국경제, 위기 극복 위해서는 자생력 강화해야 (Bloomberg, William Pesek 칼럼) 미국경제 지난해 1.7% 성장...정책당국은 투자 활성화 촉진해야 (WSJ, 사설) 글로벌 중앙은행들, 자산 확대·다양화 나서 (WSJ) 취업난, 실무 중심의 대학 교육 이끌어내 (FT)
1.31 (화)	론스타 사태,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돼야 (WSJ, 사설) 지난해 경상수지 276억5천만달러 흑자 (WSJ) 거스를 수 없는 상승세 이어가는 삼성전자 (Le Monde) 역효과 우려되는 초저금리 정책 (WSJ) 서구 선진국들은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China Daily, 사설)
2.01 (수)	한국 정부, “물가안정이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 (WSJ) 이명박 대통령, 정치권의 재벌규제 움직임 경계 (FT) EU 집행위,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 착수 (WSJ) 중국 번영의 역설 (Economist)
2.02 (목)	1월 무역수지 적자로 수출 대기업 압박 가중 (WSJ) 론스타와 한국 여성들 (WSJ, Joseph Sternberg 칼럼) LG전자, 2분기 연속 순손실 기록 (WSJ) 2012년 세계경제 최상·최악 시나리오 (Foreign Policy, Mohamed El-Erian 기고)
2.03 (금)	SK텔레콤 4분기 순이익 61% 감소 ... 하이닉스는 순손실 기록 (WSJ) 페이스북이 직면한 문제들 (Economist) 교육이 자본주의 위기 해결의 출발점 (FT, Kenneth Rogoff 기고)